

## 20세기의 흑사병 '에이즈' 실태

월간지 <웅진여성>의 '에이즈 복수극' 기사 파문이 잇따르면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의 감염경로나 국내실태, 예방법 등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 아직도 '막연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는 10년 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올해 9월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식보고된 환자수는 42만여명으로 아메리카 24만명, 아프리카 12만명, 유럽 5만6천명, 오세아니아 3천명, 아시아 1천2백명 등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러나 전세계에 1백50만명 정도의 환자와 8백만~1천만명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매일 약 5천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7명이나 된다.

에이즈는 에이즈바이러스(HIV)가 몸에 침투하면 걸린다. 이 상태의 사람을 감염자라고 부르며 발병전까지는 정상인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감염자가 환자로 발전하면 체내 면역체계가 파괴돼 온갖 합병증으로 숨지게 되는데 감염자의 40%는 7년 이내에 발병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감염자는 언젠가 반드시 환자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에이즈는 성접촉, 수혈, 분만 등 3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감염된다. 건강한 남자가 에이즈감염자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감염될 확률은 1천분의 1이며, 반대로 건강한 여자가 남성 감염자를 통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5백분의 1이다.

에이즈바이러스는 실내온도에

는 것이다.

또 에이즈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방백신도 앞으로 10년은 더 지나야 실용화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2000년까지 전 세계의 환자가 1천8백만명, 감염자는 4천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최악의 경우 4천만명 이상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치료약이 없는 대신 아지도티미딘(AZT)이라는 발병억제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감염자들에게 이 약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혈할 때 반드시 검사를 마친 혈액을 사용해야 하고 주사바늘 등 피부를 뚫는 기구는 사용 후 폐기하거나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피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콘

## 전세계 날마다 5천명 감염

국내 85년 첫발견 1백67명 확인·8명사망

치료약 없고 백신도 10년 지나야 실용화

공식보고된 환자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9만명으로 가장 많고 우간다와 탄자니아가 각각 2만1천여명, 브라질 1만9천명, 프랑스 1만5천명 등의 순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4백5명으로 가장 많고 이스라엘 1백53명, 타이 1백19명 등으로 보고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8명의 환자가 발생해 아시아에서 23위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보건행정체계의 발달 정도에 따라 나라별로 환자수에 일정배수를 곱해 감염자수를 추산하는데 유럽은 10~20배, 아프리카는 50배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평균배수인 30배를 적용하면 감염자수는 2백40명으로 추산되며 현재 1백67명이 발견됐으므로 70% 가까이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 감염자는 지난 85년 처음 발견된 이래 남자 1백44명, 여자 23명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남자 5명, 여자 3명 등 8명이 발병상태로 진전돼 모두 숨졌다.

직업별로는 해외취업자 79명, 접대업소 종사자 11명, 동포 5명, 기타 72명 등이며 감염요인은 국외에서의 성접촉이 80명으로 가장 많으나 내국인접촉도 5



에이즈는 신이 타락한 인간 세계를 저주해 내려보낸 '죽음의 사자'인가. 일단 감염되면 언젠가 발병해 목숨을 잃게 되지만 세심한 주의와 예방조치로 감염을 피할 수도 있다.

서 2~7일, 56℃에서는 3~5시간 밖에 살지 못하며 알콜이나 '락스'에는 1분 이상 버티지 못한다.

술잔을 나누거나 기침, 재채기, 음식물을 통해서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며 모기 등 곤충에 의한 감염도 불가능하다.

에이즈감염자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는 한 단순한 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면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일본에서는 에이즈감염자를 모두 격리수용해야 한다는 '과격론'도 있으나 그럴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예 확인검사를 하지 않고 숨어버리게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정설로 되어 있다.

<성한용 기자>

91.12.12